

해외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공간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출처 : <https://covid19.gehlpeople.com/>

코로나 시대의 공공공간 사용 행태 분석

- Public Spaces & Public Life during COVID-19 research(by Gehl Institute)는 자선 단체인 Realdania와 코펜하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Gehl Institute는 4개의 덴마크 도시에 대해 80명이 넘는 현장 조사연구원과 협력하여 COVID-19의 폐쇄 및 재개방의 2단계에 걸쳐 공공공간이 우리 지역사회의 코로나에 의한 큰 변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해석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
- Gehl은 사람들의 공공생활을 효율적으로 관찰하고 건물 사이의 생활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PSPL(Public Space Public Life)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등록할 수 있었고 이를 연계하여 실질적이며 의미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었음
- Gehl은 4개 도시의 Snapshots를 통한 실제 경험 데이터를 JC Decaux의 센서 데이터, 코펜하겐 시의 공개 데이터 세트, Google 및 Apple의 이동 데이터 등 빅데이터 세트와 연결하고 양 데이터 특장간의 보완과 시너지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통합적 데이터 관찰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얻은 많은 수의 사진 및 관찰과 함께 공공공간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을 도출

COVID-19의 공공공간에 대한 2가지 주요 의제

-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덴마크의 주요 4개 도시의 폐쇄 이후 재개방(Re-opening) 기간에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80여 명의 연구자들이 비접촉 관찰기법인 Snapshots방법론을 활용하여, 덴마크 공공공간에서의 사람들 행태변화와 공공활동의 비율, 활동량, 그룹핑의 형태, 새로운 행동양상의 유형 등 코로나 이후 전개될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도출
 - "How have public spaces been used in Denmark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during the re-opening?"
 - "What can we learn from public spaces during the crisis that will make a better urban future for all?"

1 도심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원되며 새로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보행자 하루 종일 활동량이 일정하게 분포

점심 피크 시간 동안 코펜하겐 시내 중심가에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도심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며 시간별 집중도는 완만해지는 평균을 이루었습니다.



2

더 많은 어린이와 고령자가 공공 장소를 사용하게 됨.

공공 장소에서 취약 인구의 분포 변경

코펜하겐 호센스 스벤보그 헬싱외르의 일반 성인들은 계속해서 도심의 공공 장소 사용자 이지만 코펜하겐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노인과 어린이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장소 사용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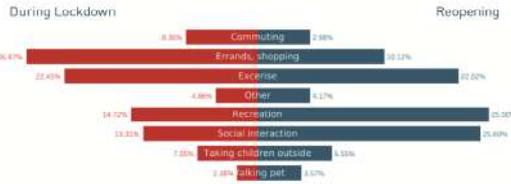
공공 장소에서 어린이 수는 3배, 유아 수는 17배



3 중심지보다 외곽중심지가 폐쇄 기간이후 더 활발해지고 사용빈도가 증가함.

4 공공공간에서 더 많은 외부 놀이와 운동 등의 외부활동 비율이 증가.

레크리에이션, 운동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동인 사람들은 여전히 봉쇄 기간 동안과 같은 이유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유형은 다릅니다.



5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 공공시설이 더욱 가치있게 활용됨.

스벤보그와 호르센 지역의 다양한 편의 시설 접근성의 강화는 지역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외부 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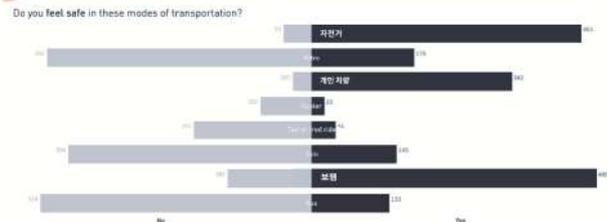
6 공공 장소에서 대화가 증가하고 낮선 사람과의 소통 가능성이 더 높아짐.

사용자의 35%는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이 주로 이전과 같거나 더 친근하다고 말했습니다. 코펜하겐은 봉쇄 기간 동안 서로 대화하는 사람이 2배, 재개방 이후에는 3배로 증가

7 안전에 대한 관심과 소수의 군중이 있을 때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짐.

과밀화에 대한 인식의 다양화 73%의 사용자가 외부 공간에 없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

8 차량 이용 의지가 높아졌으나 걷기와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아짐



Public Spaces & Public Life during COVID-19 Agenda

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편의시설의 수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이다.
2.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야외 활동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3. COVID는 공공 부문, 민간 기업, 문화 기관 및 시민들 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회를 제공했다.
4. COVID는 편안하게 걷고 자연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과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알려줬다.
5. 공공공간을 폐쇄하기보다는 잘 설계되고 합리적인 제한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준수하고 책임의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6. 일시적인 도시 해결책은 많은 도시들이 위기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것들은 도시 공간의 긍정적인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7. 도시 공원, 자연, 그리고 열린 공간은 COVID 동안 이웃들에게 공공 생활의 생명줄 역할을 하였다.
8. COVID에 대한 인식이 규제를 만들고 규제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결정지었다.

-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주요 내용은 코펜하겐에서는 COVID-19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음
- 따라서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공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본 조사연구를 통해 알 수 있음

이 현 성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부교수

- ✓ 코펜하겐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이후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
- ✓ 이에 충남도에서도 지역 내 공공공간 활용과 공유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